

• 대학산책

# 한국대학생의 음주문화

김승수 |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사무국장

- 2000년 3월 신입생 선배 강권으로 과음 후 다음날 운동 중 사망
- 2003년 1월 신입생환영회에서 폭탄주 10잔 연거푸 마시고 사망
- 2003년 4월 수련회 참가 중이던 여대생 별주마시다 사망
- 2006년 3월 신입생 환영회 후 과음으로 잠든 신입생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
- 2007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7대학생 음주운전 1명 사망
- 2007년 3월 음주 신입생 1학년 6층 숙소에서 추락사

해마다 대학가의 입학철이 되면 대학생 음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를 우리 주변에서 쉽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대학가에서는 신입생환영회, 동아리 모임, MT, 축제, 체육대회 등 거의 모든 행사 후,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술을 접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대학생의 음주문화는 개개인의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는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폭음, 음주 관련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일이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 좋지 않은 일을 위로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 스트레스나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 마시는 경우로 크게 나뉘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가에서도 술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활의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가의 음주행태를 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시험 끝나서, 애인과 헤어져서,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니까, 그냥 등 시도 때도 없이 온갖 이유를 붙여 술을 마시고 있으며, 심지어 술에 취해 음주운전과 폭행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지금에서는 당

연한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 술과 사람이 만난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대학가면 난 자유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더 많은 시간을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뻘뻘한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들의 나이 이제 스무 살.

많은 청소년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생이 되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이들은 청소년 때 하지 못했던 것, 하지 못하게 억압당했던 것들부터 하고 싶은 것이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고자 상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본다. 염색도 해보고, 귀도 뚫어보고, 피어싱도 하며, 어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담배도 피워보고, 술도 마셔본다. 웬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니 기분이 묘해진다.

이젠 일상의 많은 부분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즉

자유를 얻었다. 이제 성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이토록 기대에 부푼 신입생들이 처음 접하는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처음 선배와 술자리를 갖는다. 그 자리에서 신입생과 선배의 대화중 이런 이야기가 종종 오간다.

“선배님 제가 술을 한잔만 마셔도 숨이 차고, 얼굴이 빨개져서요.”

“야! 너 좋겠다.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오장육부가 튼튼해서 그렇데, 특히 심장이 건강해서 혈액순환이 빨리 되는 거라 하더라. 자. 한잔해?”

“... ??”

시대가 지나도 술에 대해 무지한 선배와 함께 신입생의 대학생활은 시작된다.

대학생이 되어 학교동료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술 마시는 일이다. 술은 모임에서 즐거움을 주고, 선후배간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량만큼 즐겁고, 적당히 먹었을 때를 말한다.

하지만 대학가에서의 음주는 ‘적당히’란 단어가 무색할 만큼 개인의 주량은 무시되고, 동일한 양의 동일한 술로 취해서 쓰러질 때까지 마시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동료나 선배들과 더 친해질 정신도 없이 술을 받아 마시게 되고, 술을 못 먹는다 하면 노래까지 불러가며 술을 마실 것을 권한다. 집단주의 감정이 술을 나타나기 시작한다. 만나기만 하면 술을 마시고,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술의 힘을 빌려 서로의 벽을 허물어 버린다. 그렇게 밤을 새워 술을 마셔야 진정 같은 과의 선후배가 되고, 절친한 동료가 됨을 느낀다.

더군다나 이런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일은 개인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고, 설사 말을 한다 해도 그 분위기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집단주의에서는 함부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술 마시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 성심성의껏 망 가져 준다. 이런 이유로 매년 입학시즌에 술을 마시다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나는 기사를 예외 없이 볼 수 있게 되

는 것이다.

### 무시할 수 없는 힘, 예비역 복학생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요인은 군에 다녀온 20대 중반의 복학생, 일명 ‘예비역’이라 일컫는 학생들이다. 많은 신입생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포함한 기성세대의 제한이나 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반항적으로 대응하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예비역을 포함한 학과, 동아리 선배의 말은 곧 하늘과 같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의 한 예능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의 귀걸이를 포함하여, 화장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고 다녀라 하는 등의 제한을 둔다고 한다. 이런 학교의 상황을 토로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부모의 말보다 선배의 말을 더 잘 따라한다. 기성세대의 비민주성과 권위주의에 대해 반항을 두던 신입생들이 이렇게 아무 의식 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술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선배들의 술 강요가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으나 누구도 거역하는 바 없이 그 상황에서 역새와 같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대학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전반적 음주문화에서 예비역들은 큰 영향력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이지만 군대에 다녀왔고,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은 고생을 하며 복종과 계급에 따른 생활방식을 2년 여간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후배들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이(물론 후배들은 감지하지 못하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많은 예비역 복학생들의 후배들을 보며 이런 말들을 하곤 한다.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나 학교 다닐 땐 이리저리 않았는데...”

“빠져가지고...”

“군대 다녀와야 인간되지”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재미있는 이유는 위의 말들은 예비역복학생들 또한 신입생 때 줄곧 들어왔던 말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금 선배들에게 그런 말들을 들으며 학

교생활을 하는 많은 신입생들 또한 선배에게 보고 배운 것을 전통인양 그대로 후배에게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예 비역 복학생은 나이차도 있는데다 군대에 대한 경험 또한 있으니 후배들은 이들을 쉽게 볼 수 없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부당한 것, 불합리한 것에 대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 하고 토론할 줄 아는 많은 상아탑의 대학생들이 술 앞에서 약해지는 이유는 이러한 대학의 음주문화를 쉽게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대학생들에게 평상시 술을 자주 마시는 이유에 대해 질문해보면 학생들의 답변은 의외로 간단하다. ‘술 먹지 않고 놀게 없다.’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볼 때 이 말은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할 수도 있고, 학생이기에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대학생들의 많은 시간을 술로 낭비한다고 대학생들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역으로 “어른들은 보통 뭐하고 여유시간을 보내세요?”라고 질문을 해봤다. 어른들의 답변 또한 간단하다. “우리는 주말에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질문과 답변을 보면 큰 문제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성인들의 여유시간 행태를 유심히 바라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주말에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술을 마시고, 운동 끝나고 한 잔, 여행 다녀오면서 버스에서 한 잔, 식사하다 반주로 한 잔, 더군다나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보면 그 유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음주문화를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폭탄주가 성행을 하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술이 함께한다. 대학생다운 음주문화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학의 독특한 재미를 갖게 해주는 축제 또한 지방 동네장터의 야시장과 별 다른 것이 없고, 학생들의 술 마시는 모습 또한 성인들과 다른 모습이 거의 없다. 술 마시고 싸우고, 학내에서 음주운전을 일삼고, 2차, 3차까지 술을 마시

고 수업에 결석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일상이 우리의 대학가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학교의 교직원 또한 대학의 이러한 음주문화를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본다. 학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다. 심지어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때 한 지방대학의 직원들은 학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술을 마셔, 술 마시고 다친 학생을 긴급 운송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대학가는 술에 대해 이렇게 관대하다.

기성세대의 올바른 음주문화가 없이는 대학가에서 또한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며, 대학생 또한 기성세대를 보고 많은 부분을 배우고 따라간다. 기성세대들이 건전한 자기문화, 즉 술 말고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자기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대학생 또한 기성세대의 모습을 닮아가며 전반적인 대학의 음주문화에 자극을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음주문화는 더더욱 바뀌기 어렵다. 대학의 음주문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음주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성세대의 모습부터 변화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 대학가에 알코올남용자가 늘고 있다.

알코올남용자란 용어가 웬지 섬뜩해 보이겠지만 2000년과 2006년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의 「한국대학생의 음주실태 결과」를 비교해 보니, 전체적인 대학생의 음주경험자의 비율은 2000년 99.2%에서 2006년 94.9%로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알코올 남용자 집단은 2000년 14.1%에 비해 2006년 20.1%로 6%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술을 마시는 대학생은 줄어들었지만, 술을 마시고 있는 학생은 더 많이, 더 자주 술을 마셔 과음·폭음으로 인한 문제성 음주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성인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00년 10.9%에서 2006년 13.0%로 2.1%증가한 성인에 비해 거의 3배나 증가하여 더 많은 알코올남용자

가 있음을 보여 대학생 음주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표 1. CAGE 비교 <sup>1)</sup>

구분	2000년	2006년
비남용자	85.9%	79.9%
남용자	14.1%	20.1%

대학생의 음주문화는 단순히 문제의 심각성을 떠나 이들이 향후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매년 비슷한 유형의 대학가의 음주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와 대책 없이 방관하는 학교와 관계당국은 참으로 무책임해 보인다.

중·고등학생 때부터 음주에 대한 교육이 지속되고 대학과 사회에서 또한 건강한 음주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당연히 문제는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기생해버린 잘못된 음주문화를 조금씩이나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집중적으로 음주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학가의 3월초 신입생환영회에서 음주관련 사망·사고는 분명 인재(人災)이다. 예상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교당국과 학생회의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올해도 내년도 이와 같은 인재(人災)는 반복되고야 말 것이다.

### 술 없는 대학사회?

고등학교시절 수학여행도중 학생의 부주의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사고가 난 학교장은 사고 이후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버렸다고 한다.

물론 이제 다시 이 학교에서는 수학여행과 관련된 안전 사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처방은 학생

과 학부모, 교직원 사이에 불만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학창시절 추억꺼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술도 마찬가지로다.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및 신입생환영회 때 음주관련 사고가 일어난다 해서 대학의 행사를 폐지하거나 없애버린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겠지만 본래의 목적인 선배·후배의 만남과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 또한 없어질 것이다. 술 마실 기회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지 말고 술이 우리 생활 속에서 윤희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술자리에 술이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주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안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대로 존중하고, 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자기 방식대로 마실 수 있는 음주문화를 대학에서부터 만들어 간다면 우리사회의 거대한 음주문화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학생부터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할 때 대학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음주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생들의 건강한 힘을 믿는다.

### 필·자·소·개

#### 김승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예방교육팀 선임연구원, 청소년위원회 약물예방시범학교 연구원을 거쳐 현재 디지털프로젝트팀 해모 트레이너, 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 및 저서로는 「청소년의 음주의도와 음주행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2006 한국대학생 음주문화 실태」, 「수능 후 청소년 음주예방 프로그램,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리더십 캠프 매뉴얼」 등이 있다.

1) CAGE는 알코올면담도구(Alcohol Interview Schedule)로서 면접이나 자가 적용을 통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알코올 선별도구로 각 문항의 주요 단어 앞 철자를 따서 합친 용어이다.

① 스스로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Cut-down), ② 음주에 대한 비난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Annoyed), ③ 음주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Guilty), ④ 해장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Eye-opened)